

4월 2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2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소폭상승	미 증시가 플러스권 마감에 성공,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음. 1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5.90포인트(0.07%) 상승한 8,131.33을 기록했고, S&P500지수는 4.29포인트(0.50%) 오른 869.59, 나스닥 지수 역시 2.63포인트(0.16%) 올라선 1,673.07로 각각 장을 마쳤음. 이번 한주간 다우지수는 0.6%, S&P500은 1.5%, 나스닥 역시 1.2% 올라섰음. 미 증시가 6주 연속 상승하기는 2007년초 이후 처음임. S&P500 기준 미 증시는 지난달 9일 저점대비 28% 급등했음. 씨티그룹과 제너럴일렉트릭(GE)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음.
씨티그룹·GE 실적 '예상 상회'	씨티그룹은 1분기 주당 18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시장전망치(주당 32센트)보다는 손실폭이 적었고, 우선주 배당금을 제외하면 16억달러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임. GE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28억 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당 순이익은 26센트로 시장전망치(주당 21센트)를 24% 가량 상회했고, 매출액은 9% 감소하는데 그쳤고 수주잔고가 1,710억달러에 달해 산업부문의 영업활동은 건조하다는 평가임.
유가는 2주째 하락	국제유가는 중국 석유수요 증가 관측에 힘입어 상승했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은 전일대비 35달러 오른 50달러 33센트를 기록하며 마감했음.
외국인, 한국주식 6주째 순매수..5조원 육박	외국인은 지난 3월 둘째부터 이번주까지 6주 동안 총 4조8,262억원 순매수를 기록. 올해에는 3조9,996억원 매수우위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외국인이 6주 이상 매수우위를 기록했던 것은 과거 코스피지수가 대세 하락기에 놓여있는 시점에는 전례가 없던 일. 외국인은 이달 들어 2조 8,146억원 가량을 순매수해 지난달 1조2,7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작년 5대그룹 차입금 45조...41% 급증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 중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552개사의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총 188조3,607억원으로 2007년 말(135조8,395억원)에 비해 52조5,213억원(38.66%) 증가. 같은 기간 자산 규모는 752조6,026억원에서 902조718억원으로 149조4,691억원(19.86%) 늘어나는 데 그쳐 자산 대비 차입금 비율인 차입금의존도는 18.05%에서 20.88%로 2.83%포인트 확대됐음.

제목	주요 내용
영국 경제위기엔 한국이 최대 충격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영국 경제의 불안 요인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영국이 위기에 빠지면 대규모 자본이 유출되고 국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과 정부·기업이 영국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총 913억달러로 해외 차입금 전체의 25%를 차지한다"며 이는 미국(720억달러)보다 많고 프랑스(356억달러), 일본(324억달러)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추정.
유로존, 2월 수출 24%↓...무역적자 20억 유로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이날 유로존의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24% 감소한 992억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 수입은 21% 감소한 1,012억유로를 기록. 무역적자는 20억유로로 전년(17억유로) 대비 확대됐으나 계절 조정을 반영한 무역적자는 40억유로를 기록.
EBRD, 발트 국가에 5억유로 투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내년까지 발트 국가의 금융, 에너지 산업에 5억유로(6억5,53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블루버그통신이 17일 보도. EBRD의 토마스 미로 총재는 리투아니아의 금융, 에너지 산업에 올해 1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佛 사르코지 "오바마는 풋내기"	17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날 엘리제궁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우유부단하고 모호한 입장을 가진 풋내기(inexperienced)"라고 언급. 이어 "그의 의사결정이나 효율성이 언제나 표준 이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CB총재, 5월 중 추가 통화완화 시사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넷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신중한 금리인하에 더해 비표준적(nonstandard)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월7일 정책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
中國부펀드 "올해 투자 늘리겠다..유럽 유망"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올해 유럽국가들을 포함해 국제적인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 러우지에 CIC 사장은 17일 개막된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가파른 시장 손실 막기 위해 유럽 등에 대한 투자를 꺼려왔지만 올해는 시장 환경이 변했다"며 "유럽 주요 국가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다"고 언급.
日자민당 50조엔 주식 매입계획 공개	일본 집권 자민당이 50조엔 규모의 긴급 주식 매입 계획을 공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 자민당 의원들은 이번 주식 매입 계획이 오는 27일 15조5,000억엔 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
日부품업체, 美정부에 채권보증 요청	미국의 빅3 자동차회사들에 부품을 공급해온 일본의 부품 제조업체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 정부에 채권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9일 보도. 일본의 부품 제조업체인 요로즈(Yorozu)는 미국 정부에 제너럴모터스(GM)에 납품한 부품의 채권 보증을 요청. 이어 GM에 부품을 납품한 텐소, 미쓰비시전기 등도 보증 신청을 고려중.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